

매스컴에 나타나는 경어표현의 일고찰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김지연*

차례

- I. 들어가며
- II.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나는 경어표현
 - 1.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경어표현
 - 2. 신문 경어의 특징
- III. 끝나치며

I. 들어가며

경어표현은 개개인의 담화나 매스컴에서도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구어 표현에서는 많이 나타나나 소설, 희곡 등을 제외한 매스컴 매체의 문어 표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문과 같은 공적인 성격의 문장에서는 더욱더 경어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혹간 경어표현이 나타난다고 해도 호칭 즉 경칭을 쓰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본 고찰에서는 그러한 전제 하에 매스컴에 나타나는 경어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에 잡지, 서적, 영화 등이 포함되나 본 고에서는 문자언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경어표현을 신문의 용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이 고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신문 기사에서의 호칭, 술어, 문체 등에 나타나는 경어 표현이다.

조사 자료로서 사용한 신문은 「讀賣新聞(요미우리 신문)」으로 기간은 1996년4월분 부터 12월분 까지의 기사와 1997년1월 분의 기사(석간포함)이다. 조사대상은 신문전체에서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경어가 나타나기 쉬운 소설, 광고, 기고문 등을 제외한 일반기사를 모두 조사하였다.

Ⅱ. 마스크뮤니케이션에 나타나는 경어표현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다. 그러므로 마스크뮤니케이션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으며 마스크뮤니케이션의 언어 표현은 독자를 의식하고 있다. 언어표현에 있어서의 마스크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마스크뮤니케이션 기관은 모두 그 공공적 성격으로 그 언어표현에 대한 자주적 規準을 가지고, 또한 끊임없이 일반의 反響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마스크뮤니케이션에 나타나는 경어표현은 일본에서는 황실에 대한 경어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황실에 대한 경어 표현은 호칭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사에도 나타난다. 일본 신문의 원형이 완성된 것은 백년 정도 전의 일이다. 이 원형의 특징을 크게 보면 그 특징은 뉴스 본위와 상업주의의 두 가지이다. 이와 같이 독자를 의식한 상업주의에 근거한 신문의 경우 경어에 관련한 경칭의 문제에도 대강의 틀을 정하고 있다. 三樹淸吉의 『新聞の敬語』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1) 경칭을 붙이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氏」를 사용하나 사회기사 등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さん」「君」「ちゃん」「夫人」「女史」「關(力士)」 그 외도 사용한다.
- (2) 姓 밑에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경칭은 생략한다.
- (3) 스포츠맨, 연예인의 경우에는 경칭 생략한다.
- (4) 범죄용의자가 현행범의 경우, 혹은 비현행범 이라도 범행이 결정지어져 자백 혹은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 유죄의 확정 판정 후 등은 원칙적으로 경칭을 생략한다.

이러한 대강의 틀이 정해져는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신문에 나타나는 실제의 경어의 사용의 예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조사해 보았다. 경어는 전달내용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달의 授受에 관여하는 인간관계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지면 속에서 정중한 표현을 포함하여 경어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은 일반 기사와 다른 표현 의도를 갖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설, 광고, 기고, 만화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경어표현

신문 기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칭 붙이는 법이다. 1952년 5월 文部省발행의 『これからの敬語』에는 신문, 라디오 용어의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일반적으로 문장, 용어가 쉬워져서 그에 따라 경칭도 「さん」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타당하다.
- (二)정치적 기사에 있어서의 氏의 용법도 타당하나 한편 사회적 기사에 있어서 「翁、女史、くん、ちゃん」 그 외의 경칭, 애칭을 때와 장소, 사람, 사정에 따라 문체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三)범죄용의자에 관한 보도라도 刑이 확정될 때까지 경칭을 붙이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예를 들면 현행범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사회 감정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適宜, 이것을 생략하는 일도 부득이하게 인정한다.
- (四)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경칭을 생략한다.

青山莊アパート(責任者 甲野乙雄)

이와 같이 기초적인 경칭 붙이는 법에 따라 기사를 쓰고 있다. 다양한 인물을 다루는 신문기사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어 표현이 나타난다. 본 고찰에서는 (1)國家元首에 대한 경어표현 (2)일반인에 대한 경어 표현 (3)그 외의 경어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신문기사 속에서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여 보면 기사에서의 경어 표현에 차이가 있을까하는 의문에서 나름대로 분류하여 보았다.

1) 국가원수에 대한 경어표현

(1) 일왕가

①일본 국내 황실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대전 후의 경어는 1945년전에는 일왕에 대한 특별한 어휘와 극대 존칭어가 사용되어 졌으나 1945년후에는 1945년전에 비하여 적당히 경어를 생략, 정리한 황실 기사 자체가 인간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45년후는 세 가지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변화하여 1945년전보다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1945前—일본의 戰前의 규범으로서의 경어는 皇室崇敬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昭和8년(1933)의 문부성의 「中等學校作法要領」

明治44년(1911) 문부성 제정의 「師範學教, 中學校作法教授要領」

明治43(1910) 「小學校作法教授要領」 참고

○1945後—전후 십여 년 후에 평이화의 방침이 확정되었다.

일본 신문협회의 신문 용어 간담회

昭和27년(1952) 문부성 발행의 소책자 『これからの敬語』

현대의 경어에 있어서의 왕실에 관한 경어는 근래의 40여 년 간에 현저히 평속화 되어 거의 일반적인 경어에 가깝게 표현되었고 왕실에 대한 경어는 격감하였다. 일본은 국내 즉, 일본국의 황실, 황족의 경우는 호칭, 술어, 문체에 있어서 모두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왕실, 왕족에 있어서는 호칭은 「さま」「陛下」「殿下」를 쓰고 있다. 「さま」는 왕실, 왕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칭이나 「陛下」는 일왕왕후, 태황태후의 존칭이고 「殿下」는 천황, 황후 이외의 황족과 왕족을 가리키는 경칭이다. 또 문체와 술부에도 「れる・られる」「お(ご)~なる(なさる)」와 같은 경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寬仁親皇王의 암 발생후의 식생활에 대한 기사이다.

例1) 「寬仁親王殿下は…(中略)癌と傳えられた。…(中略)電話を受けられた妃殿下は…(中略)少量ずつ召し上がる殿下のために…(中略)とおっしゃる殿下は…(中略)言われることもあるようだ。」(1996. 7. 22 月曜日)

히로히토친왕전하는…(중략)암이라고 전해졌다.…(중략)전화를 받으신 비전하는…(중략)소량씩 드시는 전하를 위해서…(중략)라고 말씀하시는 전하는…(중략)듣게 되는 일도 있는것 같았다.

호칭은 「陛下」라는 경칭을 쓰고 있고 술부에서도 존경어를 쓰고 있다. 문체는 「だ体」이다.

다음은 天皇, 皇后가 폐총을 견학한 기사이다.

例2) 「天皇・皇后兩陛下は…(中略)中里貝塚を訪れ…(中略)發掘現場を見學された。…(中略)兩陛下は…(中略)熱心にご覧になった。…(中略)陛下は…(中略)質問

をされたと言う。」(1996. 11. 13. 木曜日 夕刊)

천황·황후 양폐하는 …(중략)중리패총을 방문하여…(중략)발굴현장을 견학하셨다.…(중략)양폐하는…(중략)열심히 보셨다…(중략)폐하는 …(중략)질문을 하셨다고 한다.

호칭은 경칭이며 「れる、られる」의 경어가 사용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어는 현재 경어와 달라서 「보통의 말의 범위에서 최상의 경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1947년8월 당시의 宮内當局과 보도기관과의 사이에 성립된 기본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龍顔」「寶算」등의 어려운 한자어나 「～(さ)せ給ふ」「あらせられる」등의 문어적 표현을 피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 황실 용어도 그 평이화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십 수년이 지나서 였다. 1959년 4월의 皇太子의 결혼식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특수 사정으로 보아 궁중의 오래된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특수한 의식용어도 나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신문협회의 신문용어간담회(가맹의 신문, 통신, 방송각사위원회에 의해 구성)가 동년 3월 宮内廳기자회의 대표와 합동회의를 연 결과,

- (1) 常用漢子 이외의 字를 포함한 난해한 말은 되도록 쉽게 한다.
 - (2) 경어의 중복사용을 피한다.
 - (3) 제2차 세계대전 前, 황실기사에만 사용했던 특별한 경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
- 라고 하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2) 외국 왕실

외국의 왕실, 왕족의 경우, 「國王」「國女」등의 호칭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 뿐으로 국왕과 왕족의 행동에 있어서는 존경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본어의 기본적인 경어체계와는 다른 면을 보이는 점이 재미있다. 이것은 아무리 사회 정세를 배경으로 국민의 황실에 대한 생각이 從前과는 많이 변했다고 해도 외국 왕실과는 차별을 두고 싶어하는 일본인의 기본적인 황실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는 면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영국의 다이아나妃에 관한 기사이다.

例3) 「… (中略)ダイアナ英皇太妃が… (中略)ダイアナ妃は… (中略)手術が無事に終了するまで、立ち會ったという。」(1996. 11. 23. 火曜日)
 …(중략)다이아나 영국황태비가…(중략)다이아나비는…(중략)수술이 무사하게 종료할 때까지 입회하였다고 한다.

호칭에서만 경의를 표현하고 행동 등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다.

다음은 부르나이 국왕의 호화 생일 축하연에 관한 기사이다.

例4) 「…(中略)ハセナル・ボルキア・ブルネイ國王が十五日の五十歳の誕生日に…(中略)祝賀コンサートを開く。」(1996. 7. 16. 火曜日)
 …(중략)하세날.보르기아.브루나이국왕이 15일의 50세 생일에…(중략)축하 콘서트를 연다.

위의 예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외국의 황실에 대해서는 경칭만 사용할 뿐 술부에서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황실에 대한 경어 표현은 일본 국내 황실에 국한함을 알 수 있다.

(3) 대통령

일본어는 사람을 부를 때 또는 문장을 쓸 때 상급의 직명, 직업명, 칭호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도 존경어로 볼 수 있다. 「氏」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인명 외에도 직명 혹은 그에 준하여 사용된다. 동일하게 인명에 붙는 「さま」「さん」에 비하여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있다.

다음은 엘친 러시아 대통령에 관한 기사이다.

例5) 「… (中略)エリツインロシア大統領は… (中略)か回復した。… (中略)醫者の言葉として傳えたもの。それによるとエルツイン氏は… (中略)會議が開かれる豫定。」(1996. 11. 6. 水曜日)
 …(중략)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중략)회복하였다. …(중략)의사의 말로 전달된것. 그것에 의하면 엘친씨는 …(중략)회의가 열릴 예정.

다음은 클린턴 대통령에 관한 기사이다.

例6) 「クリントン大統領がまな娘 チェルシーさんの高校の…(中略)今回はこの價額を上回ると見られている。…(中略)指摘している。」(1996. 4. 30. 金曜日 夕刊)
 클린턴 대통령이 사랑하는 딸 첼시씨의 고등학교의 …(중략)이번에는 이 가격을 상회 할 것으로 보여진다…(중략)지적하고 있다.

일본어는 사람을 부를 때, 또는 문장을 쓸 때 상급의 직명, 직업명, 칭호가 사용되는데 이것도 존경어로 볼 수가 있다. 「氏」가 붙을 수 있는 경우는 인명 외에 직명 혹은 그에 준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2) 일반인에 대한 경어 표현

일반인의 경우도 국가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급의 직명, 직업명, 칭호가 사용되어 지나 술부에서의 경어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1) 정치가의 경우

상급 직명으로 경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접미어 「氏」도 경의를 표하며 일종의 중립적,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다음은 土井중의원의장에 관한 기사이다.

例7) 土井衆議院議長가… (中略)土井氏가… (中略)受け入れることを決めたものだ。
 … (中略)不承を得る方針だ。」(1996. 9. 26. 木曜日)
 도이 중의원의장이…(중략) 도이씨가 …(중략)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중략) 승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氏」, 상급직명 등으로 경의를 나타내고 있다. 「氏」는 일종의 중립적, 중성적 성격을 갖는다.

다음은 民主堂의 결당대회에 관한 기사이다.

例8) 「…(中略)實質的な党首となる鳩山由起夫氏、党務の責任者として…(中略)與

えるのは必至だ。」(1996. 9. 29. 日曜日)

…(중략) 실질적인 당수인 하토야마 유키오씨, 당업무의 책임자로서…(중략) 불가피하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역시 직명, 칭호 등이 사용되어져 경의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국가원수와 마찬가지로이다.

(2) 용의자, 피고, 피해자

접미사「ら」는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복수인 것을 ㉡그 외에도 동류의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용법이나 같은 의미의 접미사「たち」를 사용하는 예가 적은 것은 신문지면상의 활자를 줄이기 위함으로도 생각된다.

다음은 수배자에 관한 기사이다.

例9) 「オウム真理教の特別手配信者、八木澤善次 (三四)、松下悟史 (二九)、兩容疑者らが潛んでいた。… (中略)菊地容疑者 (二四) (特別手配中)が…二十五日わかった。」(1996. 11. 25. 月曜日 夕刊)

움진리교의 특별수배신자, 야기다쿠젠지(34), 마쓰시다 사토시(29), 양 용의자가 숨어 있었다…(중략) 키쿠치 용의자(24) (특별수배중)를 25일 알게 되었다.

다음은 일본에 불법입국 시킨 한국인 브로커 적발에 관한 기사이다.

例10) 「…(中略)摘發されたのは…(中略)張美映(二八)など六容疑者。」(1996. 9. 10. 火曜日)

…(중략) 적발된 것은…(중략) 장미영(26) 등 6용의자.

용의자를 다룬 기사에 따라서는 용의자의 이름 앞에 직업 명이 써 있으나 이것은 직명이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용의자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賞의 수상자

「氏」는 남성의 인명에 대해서 남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氏」가 꼭 남성의 경우에 사용 한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남성에도 「さん」을 붙이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기사이다.

例11) 「ノーベル賞米の3氏 (物理)米英3氏 (化學) (題目)… (中略)デービット・コーネル大教授 (六五)… (中略) Harold・クロトー・英サセックス教授 (六五)… (中略)それぞれ授與すると発表した。」(1996. 10. 10. 木曜日)
노벨상의미국3씨(물리)미영3씨(화학)(제목)…(중략)데이비드.코넬교수(65)…(중략)하롤드. 크로트. 영국 석세스교수(65)…(중략) 각각 기여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芥川賞 수상자에 대한 기사이다.

例12) 「柳美里さん…(中略)エピソードを語る時、…(中略)こぼれた。」(1996. 1. 17. 金曜日)
유미리씨…(중략)에피소드를 말할 때,…(중략)넘쳤다.

(4) 성직자

「法王」「司教」「修道女」라는 직명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다.

다음은 로마교황에 관한 기사이다.

例13) 「ローマ法王ヨハネ・パウロ二世は… (中略)書簡によると法王は… (中略)述べている。」(1996. 10. 25. 金曜日)
로마 교황 요하네 바울2세는 …(중략)서간에 의하면 교황은…(중략)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기사이다.

例14) 「…(中略)入院しているノーベル平和賞受賞者の修道女マザー・テレサ(八六)は…(中略)心臓検査センターに轉院した。」(1996. 11. 27. 水曜日)
…(중략)입원하고 있는 노벨 평화상의 수녀 마더 테레사(86)는…(중략)심장검사 센터에 옮겨 졌다.

3) 그 외의 경어표현

(1) 화제의 인물

남녀 구분 없이 「さん」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작가에 대한 기사이다.

例15) 「宮本輝さん49 (記事の題目が書かれてある部分に)作家の宮本輝氏(四九)が
… (中略)…と顔をほころばせる…読み手に對する細やかな心配りは、氏の作
品共通する特色である。」(1996. 10. 15. 火曜日 夕刊)

미야모토 히카루씨49(기사의 제목에 쓰여진 부분에)작가인 미야모토 히카루씨
(49)가…(중략)…라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다…독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는 씨의
작품에 공통된 특색이다.

(2) 스포츠 선수

외야수, 내야수 등 이름에 포지션을 붙이는 것뿐이다. 이름에 경의의 접미어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쓰거나 부르거나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통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야구선수에 관한 기사이다.

例16) 「日本ハムがヤクルト・高上秀樹外野手 (三一)を金銭トレードで獲得した。」
(1996. 11. 14. 木曜日)

일본 햄이 야쿠르트 타카우에 히데키외야수(31)를 금전 트레이드로 획득하였다.

(3) 연예인

연예인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氏」를 붙이지 않고 「さん」붙이고 있다.

다음은 가수에 관한 기사이다.

例17) 「マドンナの娘は『マリア』(題目)ポップス界のスーパー・スター、マドンナさ
ん (三八)が…初めて母親となった。」(1996. 10. 15. 火曜日)

마돈나의 딸은 "마리아"(제목)팝계의 슈퍼 스타 마돈나씨(38)가…처음으로 엄마
가 되었다

다음은 가수 마이클 잭슨의 공연에 관한 기사이다.

例18) 「米國の人気歌手マイケル・ジャクソンさんが十月末にマレーシアで計畫している…(中略)拒否を決定した。」(1996. 10. 9. 水曜日)
 미국의 인기가수 마이클 잭슨씨가 10월 말에 말레이시아에서 계획하고 있다…
 (중략)거부를 결정 하였다.

위의 예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さん」을 붙이고 있으나, 연예인의 나이, 특징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다.

이상으로 일반 기사에 있어서의 경어 표현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칭 붙이는 법이다. 1952년 5월. 文部省 발행의 『これからの敬語』에는 신문, 라디오 용어의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용례의 기사도 대부분 항목과 일치하였다.

- (一)일반적으로 문장, 용어가 쉬워져서 그에 따라 경칭도 「さん」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타당하다.
- (二)정치적 기사에 있어서의 氏의 용법도 타당하나 한편 사회적 기사에 있어서 「翁、女史、くん、ちゃん」 그 외의 경칭, 애칭을 때와 장소, 사람, 사정에 따라 문체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三)범죄용의자에 관한 보도라도 形이 확정될 때까지 경칭을 붙이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예를 들면 현행범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사회감정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適宜, 이것을 생략하는 일이 있는 것도 부득이하게 인정한다.
- (四)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경칭을 생략한다.

青山莊アパート(責任者 甲野乙雄)

이와 같이 경칭 붙이는 법은 복잡하나 상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신문, 라디오 용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지침은 1950년대의 것이나 지금과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문 경어의 특징

이 고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기사에서의 경어의 사용은 황실가 외에는 신문 기사

- 의 특성상 문체와 술부의 동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주로 호칭에 나타나 있는 점이다. 신문에 있어 경어에 관련하여 정해진 규칙과 실제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칭을 붙이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氏」를 사용하나 사회 기사 등에서는 필요에 따라 「さん」「君」「ちゃん」「夫人」「女史」「關(力士)」그 외의 것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규칙의 경우, 용례에서는 계급 등과 상관없이 주로 「氏」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성에게는 주로 「さん」을 붙이고 있다.
 - (2) 姓 밑에 직명이 붙는 경우는 경칭을 생략한다라는 경우에는 용례도 마찬가지였다.
 - (3) 스포츠맨, 연예인의 경우 경칭을 생략한다고 하는 경우는 용례에서는 스포츠맨에는 경칭을 붙이지 않았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さん」을 붙이고 있다. 또 같은 기사에서도 붙이거나 붙이지 않는 등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 (4) 범죄 용의자가 현행범인 경우 또는 비현행범 이라도 비행이 결정되어져 자백 그 외의 결정적 증거가 있을 경우와 유죄의 확정 판결 후 등은 경칭을 생략한다.
- 이와 같이 용례로 살펴본 대부분의 기사가 규칙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끝나치며

이상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경어 표현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본 논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반 기사에서의 경어 사용은 황실가 외에는 신문 기사의 특성상 문체와 술부의 동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주로 호칭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문에 있어 경어에 관련하여 정해진 규칙과 실제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규칙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 한 장의 신문 속에서도 기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문체와 경어의 사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요미우리신문 한 가지에 대하여, 그것도 1년분 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신문의 경어 전체를 반영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금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일간지와 텔레비전 등 여러 가지 매체에 나타난 경어에 대해서도 조사를 넓혀갈 예정이다.

【參考文獻】

- 平井昌夫 『現代の敬語とマナー』, 天文堂, 1972.
奥山益明 『現代敬語讀本』, ぎょうせい, 1976.
坂詰力治 『敬語思いやり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 有斐閣, 1985.
辻村敏樹 『敬語の用法』, 角川書店, 1985.
工藤小太郎 『敬語ことばつかいの練習帳』, 明日香出版社, 1983.
大右初太郎 『敬語』, 筑摩書房, 1975.
鈴木孝夫 『ことばの人間』, 新潮文庫, 1981.
文化庁 日本語教育指導參考書2 『待遇表現』, 1971.
國語國立研究所日本語教育指導參考書17 『敬語教育の基本問題(上)』, 1981.
森田良行・松木正恵 『日本語表現文型』, アルク, 1989.
讀買新聞社會部編 『日本語の現場』 第二集, 讀買新聞社.
川崎眞治 『天皇の日本語』, 新人物往來社, 1976.

【雜誌】

- 國文學12月, 臨時增補刊別, 學燈社, 1988.
言語 6 vol.8, 大修館書店, 1979.

新聞に現れる敬語表現の一考察 — 読賣新聞の用例を中心として —

金芝延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文章は、立場のわかっていない読者である公衆と、どのような立場を見立てて書かなくてはならないか、という問題を考えるべきである。そして、それはどちらの立場も説得しようと書くものである、というたてまえを取っている。しかし、その説得という働きかけには、大きく分けて三つの段階がある。その第一は理解させる段階であり、第二は理解させ、さらにのみ込ませるといふ段階である。第三段階としては理解させ、飲み込ませた上にさせるという実行を目指すものである。この各段階に応じて、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文章には、報道を直接目的としたり、宣伝を直接目的とした場合もある。また、説得を直接目的とした場合もある。このような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主体である言語は、その民族の考え方や生活の仕方と密接に結びついているので、それらが具体化されている社会慣習とも深く影響あっている。社会は人間関係を中心としているので、言語の使い方にも人間関係が反映されてくる。日本人が敬語を必要とする意識が高いのは日本の社会が相手を必要以上に敬ったり、こちらを卑下したりするのを言葉を使って表現しないと、なめらかな人間関係にならないという事実を示すものであろう。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範囲を広く考える場合には新聞や放送などに、雑誌、書籍、映画などを含めて考えるが、ここでは特に文字言語の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敬語表現を、新聞での用例を中心に考えていくことにした。この考察で重点をおいている部分は新聞記事の中での呼称、述語、文体などに表れる敬語表現である。

資料として使用した新聞は「読売新聞」の1996年4月分から12月分までのもの、1997年1月分のもの(夕刊も含まれている)である。この考察でわかった事は、一般記事での敬語の使用は新聞記事である特性上、文体と述部の動詞には表れず、主に呼称に表れている点である。皇室、皇族については呼称は「さま」「陛下」「殿下」を用いている。「さま」は皇室、皇族において共通的に使われる敬称であるが、「陛下」は天皇、皇太后、太皇太后の尊称であり、「殿下」は天皇、皇后以外の皇族や王族を指す敬称である。また文体と述部にも「れる、られる」「お(ご)~なる(なさる)」のような敬語表現を使用している。また、戦前と戦後の敬語は、戦前には天皇に対する特別

な語彙と極大尊称語が使われていたが、戦後は戦前に比べ、適当に敬語を省略・整理した皇室記事自体が、“人間的”になったとも言え、戦後は三つの基本方針を基に変化しており、戦前よりやさしくなったといえる。外国皇室・皇族に対する考え方が、従前とは急角度に変わってきたとはいえ、外国の皇室と差をつけたいという日本人の基本的な皇室に対する尊敬心が現れる面であると思われる。

新聞の場合、敬語に関連して決めてあるルールと実際の用例を比較してみると、ルールは

- (1) 敬称をつける場合は原則として「氏」を用いるが、社会記事などでは必要に応じて「さん」「君」「ちゃん」「夫人」「女史」「関(力士)」そのほかも使うとある。しかし、実際の用例では、階級などに関係なく敬称をつける場合は、主に「氏」を付けているが、女性にはほとんど付けていない。
- (2) 姓の下に肩書きがついた場合は敬称を省かれているという部分はルールと同様であった。
- (3) スポーツマン、芸能人などの場合には敬称省略。
 の場合は、スポーツマンには敬称を付けなかったが、芸能人の場合は男性・女性を区別せず、「さん」を付けている。また、ひとつの記事でも付けたり、付けなかったりなど統一性がないことがわかる。
- (4) 犯罪容疑者が現行犯の場合、あるいは非現行犯でも非行が決定づけられ、自白そのほかの決定的証拠がある場合、有罪の確定判決後などは、敬称を省く。
 の場合はルールと同様であることがわかる。

このように一枚の新聞の中でも記事の種類と性格により、文体と敬語の使い分けが異なることが分かる。今後の課題として、この研究をもとにし、放送に現れる敬語表現について研究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る。